



전주상진신헌,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수상

전주상진신헌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익 증진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한 기관에 부여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인증으로, 전주상진신헌은 올해까지 5년 연속 해당 인증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했다.

김현정 전주상진신헌 이사장은 "이번 표창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이어온 나눔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여성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남원시는 지난 26일과 27일, 부안군 농협연수원에서 2025년 남원시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단체 간 소통·협력에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특강, 문화탐방, 단체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1일 차는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전문강사의 특강과 협의회 단체 간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고, 2일차는 부안 지역의 주요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지역문화 이해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진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여성 회원들이 더 큰 자긍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취약계층 겨울 이불 지원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 이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보온 환경을 개선하고, 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총 20세대에 겨울이불이 전달되었다.

협의체는 매년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소성영 위원장은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부녀 민경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소성영 위원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성영 민경읍발전추진위원장, 쌀 10kg 50포 기탁

김제시 민경을 행정복지센터는 소성영 읍발전추진위원장이 지난 24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쌀 10kg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겨울철을 맞아 생계 부담이 큰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소성영 위원장은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부녀 민경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소성영 위원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 빛났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김미화 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영예... 코로나19 팬데믹 적극 대응 호평

무주군 보건행정과 김미화 팀장(지방보건주사)이 27일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린 '2025년 제29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민원봉사대상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창의적인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두각을 나타낸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김미화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적극 대응 △근거 중심의 감염병 방역 △장내개생충 사업 대상지가 아남에도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을 신청·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유료기간이 임박한 대상포진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앞장섰으며, △잔여 백신은 제조사와 직접 협의회 교환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2023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의약품 우편 수거 사업 추진을 통해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시행으로 예방접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뿐만 아니라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와 청소를 돕고, △지역 내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교통 정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숭순수범해 왔다.

또한 △공직자로서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한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2년 무주군 보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미화 팀장은 33년 동안 보건의료원과 민원봉사대 등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무주=전문선기자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김제예술회관 초청 내한공연

세계 유일의 아가펠라 소년합창단이자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이 오는 12월 11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당대 최고 작곡가들의 천상의 음악들과 프랑스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악 여행으로 준비했다. 모리스 뒤라플레의 '사랑이 있는곳에'(Ubi Caritas)를 시작으로 헨델 바흐, 카치니, 모차르트의 '아베베를'(Ave Verum)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 작곡가들의 고전 클래식 명곡들을 천상의 화음으로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음악 여행은 물론 아돌프 아담의 '오 거룩한 밤', 프란츠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피아프의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캐롤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는 무대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또한 프랑스 음악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드미 루소의 희망을 벽에 그리다, 자크프렐의 '사랑만 있다면' 등 유명 상송들과 수천년부터 이어온 전세계 곳곳의 진귀한 민속곡들로 폭넓은 환상의 레퍼토리를 시대와 장르를 넘어 사랑과 평화, 희망의 메시지를 합창 음악의 진수를 통해 맛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 할 것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2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jg.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남원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 '희망의 공부방'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7일 남원시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5호' 오픈식을 열고 농촌지역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솔로몬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개소 이후 20년 동안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아동들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불편함을 주던 책상·의자를 새로 교체하고, 난방이 되지 않던 학습실 바닥에 전기난방과 장판을 시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책장, 좌탁, 신발장, 소독기, 블라인드 등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센터 운영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한전 전북본부, 남원시에 성금 600만원 기부

남원시는 11월 27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연원섭)에서 성금 6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남원시 부시장실에서 연원섭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기부는 한전이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나눔 활동이다.

연원섭 본부장은 "한국전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남원시에 처음으로 성금을 기부해 주신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성·금품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기탁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오픈식에는 허인선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이은주 운봉읍장 박미영 솔로몬지역아동센터장 박은영 전북은행 남원지점장 등이 참석해 공부방 개소를 축하했다.

/오상근 기자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 성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 사랑의 열매 무주지회 봉사단원들이 지난 무주군청을 찾아 성금 2백만 원과 '사랑의 열매' 저금통 15개를 기탁했다.

임미화 단장은 "매년 봉사단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사랑의 열매 무주지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사랑의 열매봉사단은 80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주년빛불축제 안전 요원 '사랑의 열매 저금통 모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복지관 배식 봉사 등을 실천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회장 우수봉사단 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대, 지역 복지기관에 사랑의 김장 나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7일 오전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약 400kg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정성껏 만든 김장김치는 덕진노인복지관, 금안노인복지관, 전주효사랑노인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됐다.

양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김장 작업을 마친 뒤 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나눴다.

양오봉 총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거점국립대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연대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 인후3동 지사협, 50가구에 김장 등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병갑)는 26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1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사랑기탁 김장 김치 나눔사업'은 인후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그 의미가 더 컸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병갑 위원장은 "이번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국승기 인후3동장은 "이번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곰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 김장김치 등 후원

남원시는 지난 26일 곰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임광호)가 관내 어려운 250가구에 김장 200포기, 쌀 30포, 등유 20L, 라면 2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곰드래장애인협회 남원지부에서 수시로 마련한 뽕튀기 판매 수익금을 통해 김장 200포기를 직접 담가 후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연탄 1,000장 및 난방유 200L 등을 취약계층 27가구에 지원하였고, 매년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관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후원물품 지원 등을 꾸준히 시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소택배 김인철 대표, 무주군에 300만원 기탁

'미소택배' 김인철 대표가 27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기탁식에는 무주지역자활센터 권삼일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김인철 대표는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보람을 이웃과 지역을 위한 나눔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성금이 무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소택배는 전주시에 위치한 곳으로 해마다 나눔과 기부 문화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